

## 장애인 환자의 소아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통계적 고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최영규 · 이성민 · 김동욱 · 이금호\*

**연구배경:**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 시 환자의 거부 반응에 대한 행동조절 방법은 심리적 접근법, 신체 억제법, 약물을 이용한 진정요법, 전신마취 등이 있다. 대부분 심리적 접근법을 통한 국소마취 하에 치료를 시행하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심하거나, 전신질환, 공격성 성향을 갖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 불안이 심한 경우 등은 전신마취의 적응증이 된다. 저자들은 전신마취하에 치료를 받은 장애인환자들의 자료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방법:** 1997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장애인 환자 중 다발성 우식증으로 전신마취에 의해 치료를 받은 64명의 소아치과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전신마취를 선택한 이유, 마취 전투약의 사용 여부 및 종류, 기관내 삽관 방법, 마취 유도 약물, 마취 유지 약물, 마취 시간 및 수술 시간, 회복실 체류시간, 입원 기간 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성별 분포는 여자가 30예, 남자가 34예이었고, 평균 연령은  $12.8 \pm 11.0$ 세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1-10세가 35예, 11-20세가 18예, 21세 이상이 11예이었다. 전신 마취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정신 지체가 24예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증 12예, 뇌성마비 6예, 행동장애 4예, 정신 지체와 뇌성 마비가 함께 있는 경우 3예, 치매, 경련성 질환, 심장 질환, 언어 장애 등이 각각 2예씩, 청각 장애, 혈우병, 다운 증후군 등의 기타 질환을 가진 경우가 7예이었다. 마취 전투약 사용 여부 및 종류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전투약을 사용했으며, atropine이 36예, glycopyrrolate가 23예, glycopyrrolate와 midazolam이 5예이었다. 기관내 삽관 방법에 대해서는 경비 기관내삽관이 55예, 경구 기관내 삽관이 9예이었다. 마취 유도 시 사용된 약물로는 thiopental과 함께 succinylcholine이 45예, vecuronium이 12예, rocuronium이 5예, 기타 2예이었다. 전신 마취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약물은  $O_2-N_2O$ 와 함께 enflurane이 43예, sevoflurane이 11예, isoflurane이 10예이었다. 마취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5.8 \pm 53.4$ 분이었으며, 수술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75.3 \pm 51.7$ 분이었고, 회복실 체류시간의 평균은  $45.8 \pm 15.2$ 분이었다. 평균 입원기간은  $3.0 \pm 0.5$ 일이었다.

**결론:**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 시 환자와의 협조가 어렵거나 응급 상황 발생이 예측될 경우, 전신마취의 이용은 국소마취에 의한 시술과 비교 시 시술시간의 단축 및 1회에 가능한 모든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술자 및 환자 모두에게 유용한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선천성 질환의 동반 및 장애로 인한 술 전 세심한 이학적 검사가 요구된다.